

‘KIA 가을야구’... 승부사 네일이 활짝 연다

에이스 네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특명

‘V12 주역’ 그 감동 다시 한번...“첫판 무조건 잡는다”
후반기 8승 2패 상승세...V投 예약, 긴 이닝 소화는 덤



KIA 타이거즈의 가을 첫 승부가 ‘에이스’ 네일의 어깨에 달렸다. KIA는 오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다. 네일의 선발 등판이 유력하다. LG는 토크를 선발로 내세운다.

준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다. 1차전을 앞둔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보태면 된다. 반대로 패하면 3승을 거둬야 한다. 첫판부터 주도권이 걸려 있다. KIA는 광주에서 1·2차전을 치른 뒤 잠실로 이동한다. 홈에서 먼저 승리를 챙겨야 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출발점에 네일이 서 있다. 네일에게 가을야구는 낯설지 않다. 2024년 KIA에 입단한 네일은 첫해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을 남겼다. KIA의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보탤다. 지난해에는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가을 무대에서 지

못했다.

올해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네일은 올 시즌 KIA 선발진을 이끌었다. 31경기에서 13승 7패, 평균자책점 3.49, 퀄리티스타트 20차례를 기록했다. 다승 부문 리그 전체 4위, 팀 내 1위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냈다. 전반기 5승 5패에 그쳤지만 후반기에는 8승 2패를 거뒀다. 평균자책점도 3.77에서 3.14로 낮췄다.

지난 9일 NC와의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에서도 70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다. 최근의 상승세를 가을야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다만 LG를 상대로는 기록이 없었다.

올 시즌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4.58이다. 5월21일 5⅓이닝 5실점으로 패했지만, 9월26일에는 60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다.

지난 3일 잠실에서 6⅓이닝 4실점했다. 안방에서 상대타선을 얼마나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네일이 제 몫을 한다면 KIA 타선에도 기대를 걸

만하다.

상대 선발 토크스트는 올 시즌 KIA전 5경기에서 1승 3패, 평균자책점 6.20으로 고전했다. 지난 3월31일에는 30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5일 잠실에서 KIA를 상대로 50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KIA가 토크스트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다.

KIA는 정규시즌 막판 LG를 상대로 7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가을야구는 새로운 승부다.

정규시즌의 우위가 첫판 승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네일이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한다. 올 시즌 183이닝을 던지며 이닝 소화 능력은 입증했다.

네일이 오래 버틸수록 불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틀날 2차전에서도 마운드 운용에 여유가 생길다.

2년 만에 돌아온 KIA의 가을야구. 그 첫 승의 열쇠를 네일이 쥐고 있다. /주홍철 기자



전남광주 선수단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사천경기가 열린 목포 국제축구센터 하키경기장을 찾아 목포고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전남’ 마지막 이름으로 아시안게임 별들과 함께 뛴다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 오늘부터 열전 돌입

광주, 양궁 오예진·육상 이재성·서구청 펜싱 ‘金빛 도전장’
전남, 근대5종 서창완·유수 김민수·유도 김지정 연패 사냥



전국 스포츠 선수들의 대축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오후 6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제주에서 대장정에 돌입한다.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주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빛낸 태극전사들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각 시·도 대표로 출전해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시선수단은 육상 등 50개 전 종목에 1천520명이 참가해 종합 10위를 목표로 한다.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단체전·개인전 은메달리스트 오예진(광주은행 태권양궁단)과 육상 남자 400m 계주 동메달리스트 이재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을 선봉으로 카누 금·은메달 최민규(국민체육진흥공단), 사격 금메달 윤서영(KB 국민은행)·은메달 봉서린(광주시체육회), 유도 은메달 김민수(광주교통공사) 등이 ‘별들의 잔치’를 펼친다.

이밖에 한영호(광주동구청)이 복싱 5연패에 도전하고, 지난 대회 3관왕 역도 손현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김제량(광주체고)과 조정 2관왕 김지선(목성그룹)이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산악 스포츠클라이밍 속도에서 한국신기록을 갱신했던 신은철(더솔)은 자신의 기록에도 도전한다.

올해 펜싱전국대회 예예 단체전 3관왕 서구청 펜싱팀과 올 시즌 스위시 전국대회 4연패 주역 박술민이 뛰는 동일미래과학고 스키팀, 고교 여자농구 강자인 수피아여고 농구팀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남광주체육회장은 “광주·전남 체육인의 위대한 저력을 원동력으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된 에너지로 대회를 빛내주길 바란다”며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사하는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체육인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 5종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서창완(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을 선봉으로 49개 종목, 1천79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전남은 종합 13위를 목표로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나선다. 전남은 올해 테니스 남·여 고등부(전남체고)와 배드민턴 여자대학부(동신대), 축구 여자일반부(강진스완스) 등 신규팀 창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대전 추첨 결과 일부 종목

에서 부진세를 확보하는 등 추가 득점 가능성도 커진 만큼,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목표 달성에 힘을 낸다는 각오다. 댄스스포츠와 레슬링, 요트, 바둑 등 전통 효자 종목 활약과 유수 김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5연패, 유도 김지정(순천시청) 4연패, 근대5종 김영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2연패 도전 등 국가대표들의 선전이 더해진다면 목표, 이상의 성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회 최고령 선수인 승마 마장마술 종목의 조한호(68·전남삼마협회)는 14회 연속 전국체육대회 출전으로 최다 출전 기록을 새로 써 눈길을 끌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육대회는 선수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열정이 결실을 맺는 무대”라며 “메달의 색깔과 결과를 넘어, 전남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가 이미 자랑스러운 전남체육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전남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이 되길 바라며, 선수단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부상없이 대회를 마무리해 전남체육의 저력과 자긍심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광주, 사전경기 불링·사이클 선전...메달 20개 수확

광주선수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메달 20개를 수확하며 선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 “사전경기로 치러진 배드민턴과 불링, 체조, 사이클 선전으로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1개 등 모두 2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주선수단은 불링 남자U18 3인조에서 강다훈(광주체고), 김재영·민도율(이상 첨단고)가 2

천700점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따내며 이어 강다훈·정동화(이상 광주체고), 김재영·민도율·송도길·김은준(이상 첨단고)이 팀을 이룬 5인조에서는 총점 4천4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강다훈·김재영·민도율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송도길은 마스터즈에서 은메달을 추가했고, 민도율과 정동화는 2인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대학부 2인조에서는 손주은과 김은총(이상 호남대)이 1천541점을 합작하며 은메달, 김은총·김하연·손주은·김수빈(이상 호남대)이 출전한 3인조에서는 2천376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체조 여자U18에 출전한 송재연(광주체고)은 이단평행봉에서 은메달, 마루에서 동메달,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전남은 사전경기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3개, 사이클에서 은메달 1개·동메달 2개, 탁구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이번엔 원정 無勝 攄다”

광주FC, 오는 18일 대전 원정서 연승 도전



218일만의 승리로 반등의 에너지를 충전한 광주FC가 기세를 몰아 올 시즌 첫 원정 승리와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31라운드 울산HDFC와의 홈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4-3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28경기 연속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그동안 신구조화로 탄탄하게 다져온 팀워크가 값진 승리로 증명된만큼 이번 대전전에서 시즌 첫 연승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공격의 중심에는 바루아가 있다.

바루아는 울산전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값진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한 경기 공격포인트 4개는 리그 기준 광주 선수 최초의 기록으로 의미를 더했다. 바루아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비롯해 빠른 공격 전개와 날카로운 기회 창출, 결정력까지 보여주며 광주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아이데일은 울산전 득점으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꾸준한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창무도 울산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힘을 보탤다.

최경록과 하승은, 문민서, 프리드손 등 다양한 공격 자원들도 활약을 준비하고 있어 광주 공격 선봉에서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앞선 경기에서 노출한 3실점의 수비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지만, 기존 수비진과의 호흡이 더욱 맞아간다면 수비 조직력과 안정감



광주FC 바루아가 지난 11일 열린 울산HDFC와의 홈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팀 동료 반 흐른스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 대전은 최근 공식전 7경기 연속 무패(4승 3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 디오고가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좋은 골 감각을 보이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다만 대전은 주중 상하이 하이강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2차전 원정을 치른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광주는 울산전 이후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며 체력을 회복하고 조직력을 가다듬었다. 최근 전북현대와 울산HD 등 강팀을 상대로도 물리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광주는 이번 대전전에서도 특유의 빌드업과 적극적인 압박,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워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고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박희중 기자



불링 남자U18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원복부터 민도율, 김재영, 강다훈. <광주시체육회 제공>